

25.05.22.(목)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신자본시장 투자생태계 정책제안 간담회 ... “공정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시급”

오늘(5/22) 15:3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정책제안 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민병덕 위원장)는 22일(목)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신자본시장의 공정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민병덕·김남근·김현정 의원과 공동주최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최근 급성장 중인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의 제도적 공백을 조명하고, 장외투자중개업 제도화, 플랫폼 간 공정경쟁 기반 마련, 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등을 주요과제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국대학교 전주용 교수는 ‘비상장주식거래 활성화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위험투자에 대한 선호는 규제로 막을 수 없으며, 해당 투자수요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장외시장 규모 확대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인베스터디 신동원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투자 실무자 시각에서 스톡옵션 및 지분 저평가 문제와 스타트업 투자구조 왜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정비 시급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주)서울거래 비상장 양주동 대표는 ‘장외거래 중개업자와 공정이슈’를 주제로, 디지털 세계에서 공시로는 부족하며 자본시장법으로는 증권사의 한 종류로, 공정거래법으로는 디지털플랫폼에 해당해 금융과 IT가 융합된 사례로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을 동시에 적용 받는다면 플랫폼 간 불공정 경쟁사례와 시장 내 이해상충 구조에 대한 실태를 공유하고 장외투자중개업의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비상장거래 플랫폼이 모든 과정을 독점하면서 투자자는 공정한 정보 없이 선택권을 잃고 있다.”며 “공시왜곡, 정보통제, 자기 계열사 우대 등으로 투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비상장 거래 플랫폼의 공정성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중간회수 시장 등을 제도화해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